

# 일본해 명칭에 대한 예비조사 연구

杜 祥 明

(중국측회과학연구원)

## <국문요약>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는 현재 일본해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서구 지도상에서의 이 바다에 대한 명칭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Sea of Korea, Mer du Coree, Mer Du Japon 등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중국의 역사적 기록들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지명표기가 시기별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遼·北宋 시기에는 “동해(East Sea, 東海)”, 元代와 明代에는 “경해(Jing Hai, 鯨海)”, 清代에는 “동해(East Sea, 東海)” 및 이후 “일본해(Sea of Japan, 日本海)”로 표기되었다. 班固(32-92 A.D.)의 漢書를 분석해 보면 그 당시 지금의 동해(일본해)는 “樂浪海(Sea of Lelang,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로 명명되었음이 분명하며, 1602년 Matteo Ricci의 세계지도집(중국어판)에 처음으로 일본해로 표기되었다. 于右任(Yu Youren)은 1947년에 일본해 표기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대신 “태평해(Taiping Sea, 太平海)”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고, 《最新中外地名辭典》(1948년)에는 “Taiping Sea”로 표기되었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 일본해 표기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부터이며, 이후 중국에서 일본해 명칭은 널리 사용되었다.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지명에 대해서는 수세기 동안의 전통적 표기법이라든가 주변 국가의 표기관행 등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전세계 국가들이 일본해로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해에 대한 수정 표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한국이 “East Sea(동해)” 표기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자료를 제출한다면 일본해 수정표기와 내년에 열릴 제7차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의 이슈화와 토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